

주가	환율	금리
+21.56 1,311.10 (코스피지수)	+1.10 963.70원 (원/달러)	-0.03 4.76%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46.48 (+1.64)	
다우(7월)	11,219.38 (-20.97)	
나스닥(7월)	2,072.50 (-12.55)	
넷케이	15,464.66 (+310.60)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5.06엔 (-0.13)	
유로 달러 환율	1,281.9달러 (-0.51)	
3년만기 회사채	5.08% (-0.03)	
콜금리	4.25% (보합)	

올 추석 '황금연휴' 최장 9일

3명중 1명 "고향대신 여행·쇼핑"

올 추석 명절에는 3명중 1명이 고향 방문 대신 황금 연휴를 즐기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추석 연휴가 '샌드위치 데이'까지 합할 경우 최장 9일까지 늘어나는 등 근래에 보기드문 황금 연휴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초 설날 설문에서는 81%가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응답했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자사 카드 고객 8500명을 대상으로 추석 계획 관련 e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만이 올 추석에 고향과 친지를 방문하겠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연휴를 즐기겠다는 사람은 28%,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12%로 나타났다.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힌 사람중 35%는 고향에 가는 대신 여행을 떠나겠다고 답했다. 가벼운 외출(24%), 문화생활(23%), 쇼핑(13%) 등은 그 뒤를 이었다.

추석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선 남녀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은 즐겁다(33%), 기대된다(15%)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반면에 여성은 피곤하다(28%), 귀찮다(17%) 등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올해는 개천절이 징검다리로 포함돼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졌다"며 "이에 따라 미리 고향에 다녀온 뒤 연휴동안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 창립

광주전남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9일 오후 4시 광주 센트럴관광호텔에서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사진), 강영태 중기협 광주전남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창립총회를 계기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대표 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됐으며, 이어져 21개 중소기업의 업종별 단체 이사장들이 연합회를 구성, 활동하게 됐다.

또 그동안 임의단체 성격으로 운영돼온 것과 달리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시행으로 법적근거를 지닌 중소기업단체로 조직화해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식 활동기구로 역할하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용구 회장은 중소기업 대표기관으로 큰 역할을 해주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ee@

롤렉스시계, 광주 신세계에 매장 오픈

시계 브랜드 롤렉스는 오는 11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2층에 공식 판매점을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에 처음 선보이는 롤렉스 공식 판매점은 서울 4개 지점, 부산 2개 지점, 대구 1개 지점에 이어 국내 8번째 매장이 된다. 롤렉스 공식 판매점이 광주에 선보임에 따라 호남지역에서도 다양한 롤렉스 제품을 구입하고 롤렉스의 공식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에코메디슨, 가려움증 해소 '모스키프' 출시

친환경기억 에코메디슨(대표이사 임병규)은 일체의 화학물질이나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열전도로만 모기나 벌레 물린 곳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에코메디슨에 따르면 독일 다비타가 제조하고 유럽에서 의료가 기술력을 인정받은 '모스키프(MosQuit)'는 인체가 벌레나 모기에 물렸을 때 주사된 독성에 대항하느라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데서 오는 가려움증을 51도의 집중된 열을 이용해 해소해준다. 사용방법은 기기 물체를 3~5초 동안 물린 부위에 갖다 대기만하면 침투된 독성을 분해시켜 가려움증과 붓기를 순간적으로 가라 앉혀준다. 가격은 대당 8만5천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연체료 물더라도 9월까지 기다리자”

주택 취·등록세 인하 후폭풍...아파트 잔금 늦춰 자자체 稅收감소·건설업체는 입주 지연 '된서리'

오는 9월 주택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4.4%→2.2%)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연체료를 부담하더라도 입주시기를 늦추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사들도 '입주 일정 연기'나 '거래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의 문의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도 거래세 인화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 민원 쇄도=8일 건설사와 업계에 따르면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 일정 조정 여부나 잔금 연체료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오는 1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730여 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광주 S건설은 지난 3일 이후 취득·등록세 인하를

둘러싼 문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우선 입주를 한 뒤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9월 이후에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잔금을 선납한 계약자들 사이에선 거래세 인하 소급적용이나 입금 처리를 미뤄달라는 민원을 계속 내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이미 잔금을 납부하거나 이사 날짜를 8월로 잡은 계약자들의 불만이 큰 만큼 회사 차원에서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요구도 확산=정부의 거래세 인하 방침 발표 이후 정부와 열린우리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세율인

하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일부 지역의 소송 제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에 대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광주에서도 최근 입주를 마친 서구 금호동 C아파트와 서구 화정동 E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말 C아파트에 입주한 김모(46)씨는 "선납할인을 받기 위해 잔금을 미리 납부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잔금을 미리 내고 남들보다 세

금을 2배로 내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지자체, 지방세수 감소 고심=취·등록세는 광역 시·도의 중요 세원이다. 16개 시·도의 전체 지방세 수입 25조5천억원 가운데 52%인 13조4천억원이 취득·등록세로 들어온다.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로 감소하는 취득·등록세는 한 해 1조4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5.4%에 해당된다.

광주시의 경우 올 1~4월 입주한 아파트(7천279세대)를 토대로 9~12월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분을 추산하면 각각 125억원, 88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광

주의 총 지방세수 7천969억원의 2.67%에 해당된다. 특히 광주는 수완지구 아파트 공급이 8월말부터 본격화되는 데 행정부의 예산 보전이 오는 12월말께나 이뤄질 예정이어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부는 광역 시·도들의 세수 감소를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거래세는 인하됐지만 국세인 보유세는 증가했으므로 보유세 증가분을 지방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광역 시·도들이 행정부 눈치를 보는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목	과세 발생지점	현행	개정 이후
취득세	잔금 납부일	300만원 (분양가의2%)	결제일 150만원 (분양가의1%)
	등기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300만원 (분양가의2%)	150만원 (분양가의1%)
지방교육세	등록세 부과시	60만원 (분양가의0.4%)	30만원 (분양가의0.2%)
	계	660만원	330만원

자료: 스프레드뱅크 흥남저서



‘농산물연합 마케팅사업단’ 출범.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용순)는 8일 광주 북구 중흥동 전남본부 건물 정문에서 농협 관계자와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전남본부 농산물연합마케팅사업단’ 출범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농협은 이를 통해 전문화된 산지 출하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리 농산물 제값받기를 실현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출기업 6년새 8,800개 사라졌다

광주는 소폭 증가...환율 하락이 주원인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로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이 급속하게 늘어나 최근 6년6개월 동안 수출기업 수가 8천800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의 수는 2만3천17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4천692개)보다 1천516개(6.1%)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현재 수출기업의 수는 수출기업 수가 가장 많았던 1999년 3만1천992개보다는 무려 8천816개가 줄어든 것이다. 수출기업의 수는 1999년 이후 2000년 3만1천841개, 2001년 3만1천928개, 2002년 3만538개, 2003년 3만1천525개, 2004년 3만645개, 2005년 2만8천542개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당가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91.0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6보다 떨어졌고 수출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2004년 1.4분기 13.3%에서 지난해

1.4분기 6.4%, 올해 1.4분기 5.6% 등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산자부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의 환율과 수출업체 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업체의 수는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채산성 악화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수출을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단지공단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4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

과, 수출기업의 84.6%가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수출이 절반 이상 감소한 기업도 24.1%에 달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의 무역업체 수는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2003년 690개에서 2004년 695개, 2005년 720개로 소폭 증가한 반면 전남은 2003년 743개, 2004년 707개, 2005년 709개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여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쓰리엠 과학캠프 인기 전남 초등생 80여명 참가

한국쓰리엠(3M)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KT 나주 수련원에서 '제1회 3M 어린이 과학캠프'를 개최해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8일 한국쓰리엠에 따르면 이번 과학캠프에서는 미국 3M부사 찰스

탠리 연구원의 과학 실험수업이 진행되던데 이어 과학문화재단 김경식 교사의 화석발굴 특강 등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이번 과학캠프는 3M의 제조시설이 위치한 나주 등 전남지역 학생들에게 우수한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됐으며, 8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양종합공사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8/10	062-369-0790
에이아이에스그룹	[광주신세계백화점] 판매 및 매장관리 사원	고졸/경력2년	1200~1400	08/10	02-461-1505
㈜컴텍아시아	전기자동차 설비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8/10	070-7018-0077
㈜한빛시스템	2006년 대한민국 1기 광주 T/M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1	062-376-1118
부형 B&C	건설회사 영업 및 광고영업(실사출력)	대졸/경력3년	1600~1800	08/12	062-384-4875
퀵빌건설	비서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8/12	062-572-5500
시트모아	웹사이트관리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8/12	062-385-4445
한길시스템	복사/제본/출력 업무 담당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8/12	062-675-8559
한진실업	냉장고 부품 조립(ASS)업무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8/12	062-953-4702
OANARA	네트워크/관공서 네트워크 유지엔지니어	초대졸/경력2년	1400~1600	08/13	062-224-6073
㈜재능교육광주	정규직 재능선생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5	062-973-1132

〈광주전화번호 512-6210 제공〉

직장인 절반 “노후대책 없다”

상의 1,000명 대상 설문

노후대비 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직장인이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직장인이 42.4%,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직장인이 2.5%인 것으로 조사돼 현재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직장인은 모두 4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개월전 같은 조사(35.4%)

때보다 9.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취업난에 따른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기 지연"(20대), "결혼과 주택마련 연령의 상승"(20대와 30대), '사교육비 및 세금 증가'(40대와 50대) 등의 이유로 실제 노후를 대비할 경제력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노후를 대비한 자금규모는 '3억~4억원 미만'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5억~7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7.8%로 그 뒤를 이은 가운데 작년에는 3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72.1%였던 것이 올해에는 80.0%로 높아졌다. /연합뉴스